

로 일컬어 졌는데 죽은 뒤에 처자가 곤궁하여 굶주리다가 올해년 큰 흉년에는 시장에 다니면서 구걸하였으므로 임금이 진휼청으로 하여금 죽을 마련하는 동안만 기한하여 월름을 계속하게 하였으며, 이때에 이르러 또 전례에 의하여 구호케 하였다.

***사후13년 숙종30년(1704년) 4월 18일.....생략**

지평 유태명이 상소하기를.....생략
고 상신 홍명하 감사(監司) 이단석 정(正) 홍무는 얼음 같은 맑은 절개로 온 세상에서 칭송 받았는데 그의 처자와 후손들은 굶주리고 곤핍함에도 국가에서는 특별히 우대하여 구휼함이 없으니 옛날에 이른바 청렴한 관리를 어찌 두고자 하겠느냐? 라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.....생략

***사후15년 숙종32년(1706년) 3월 20일.....생략**

호조 판서 조태채가 말하기를 고 참판 이단석은 청렴결백한 지조가 있었고, 죽은 뒤에 처자가 기아 상태에 있으므로 마땅히 진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. 하니 임금이 진휼정의 요미(料米)를 주라고 명하다

***사후 21년 숙종38년(1712년) 2월 10일**

고 감사 이단석의 처자에게 늑금(給贖관리들의 녹봉) 하도록 하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.
도제조 이이명이 아뢰기를 고 감사 이단석은 청백으로 세상에 밝게 알려졌는데 처자가 얼고 굶주림을 면

치 못하니 마땅히 다시 전대로 늑금을 하여야 합니다. 하니 이단석의 처자에게 일찍이 늑금을 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중간에 중신토록 늑료를 줌은 옳지 않다하여 확실하게 파하라는 명이 있었다.

***사후25년 영조1년(1725년) 11월 8일.....생략**

헌납 채응복이 상소 하였는데.....생략
고 참판 이단석은 청백하고 청렴하며, 근신(勤愼)한 것이 그와 비교될 사람이 드뭅니다. 의당 포상과 증직을 더하여 주시고 그 봉사(奉祀)하는 손자를 수록하게 하소서 하니.....생략

이단석의 손자는 녹용(錄用: 채용)하도록 하였다. 경상도 관찰사의 소임을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 입고 온 옷은 경상도 관물이므로 돌렸다고 하며, 수행원 3명이 왔는데 식량이 없어 부인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식사를 대접 하였고, 집은 방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고 비 오는 날엔 방안에 빗물을 받는 그릇이 가득 하였다고 후손은 전한다.

*이단석은 영조 때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추증 되었으며,
*영조2년(1726년)에 숙종 때 문신 쌍호당 이단석 선생을, 다음해에 쌍호당의 부친 취수헌 이제형 선생을 영광의 유림들이 장천사에 추배하였다.

<온양문화원 자문위원 김일희>



청백리 이단석의 系譜

경명군(景明君)-안성군(安城君)--평원군(平原君)
성종7.8 -안남군(安南君)--금천군(錦川君)--창원정(昌原正)--생인(生寅)--제형(劑衡)--단석(端錫)
하석(夏錫)
화석(和錫)
유석(有錫)
--능성군(綾城君)

자료 : 조선 왕조실록, 국사대사전
전주이씨 경명군
전남 장성군 향토문화재
쌍호당 후손 이관훈

- 청백리 [淸白吏] -

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(淸廉) · 근검(勤儉) · 도덕(道德) · 경효(敬孝) · 인의(仁義)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, 의정부(議政府)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이다.

총 219명이 배출되었으며, 대표적인 인물은 맹사성 · 황희 · 이현보 · 이황 · 이원익 · 김장생 · 이항복 등이 있다.